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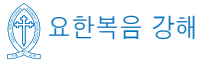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II

(요 6:52-59)

이종윤 원로목사

교회의 특성을 말할 때에 교회는 우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연합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 없는 평화는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평화나 연합이 없이도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연합이나 평화가 없이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 있기를, 늘 평안과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연합의 결과

(1)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확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54절 상)

결혼한 사람이 남편을 믿지 못하거나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그들은 연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와 연합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54절 하)

부활의 생명은 질적으로 변화된 생명입니다. 죽을 목숨과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new life)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56절). 그리스도에게로 주소를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생명의 변화가 오고, 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이 그리스도의 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붙어살면서, 옛날 주소에 살면서 주일에 성경책이나 들고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려서 가는 사람은 완전히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기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골 2장).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것이며(엡 3:19)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도 풍성해집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57절). 그리

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리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지 다음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요일 3:24)

둘째, 당신은 주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일 2:6)

셋째, 당신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고 있습니까? (요 15:2)

넷째, 당신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다섯째,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섯째,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당신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요 6:57)

일곱째, 당신은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명령받았으니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같이 못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무엇을 더 의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만 사랑하시고 잘난 사람만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지경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되 영혼만이 아니고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갈까 봐 벌벌 떨고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았고 도마는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까지 하였고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한 몸, 새 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될 때에는 육신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여생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1 흥해작전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2021년 6월 6일(주) - 6월 25일(금)

개전예배 : 오늘 찬양예배 시

6.7(월)-6.16(수) 새벽 5시 30분 / 서명철 목사 · 장석남 목사 · 조원영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 6.17(목) - 6.25(금) 새벽 5시 / 손달익 목사

“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다
(시편 27편 5절)

”

2021 흥해작전이 오늘 찬양예배 시 개전예배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6월 7일(월)부터 16일(수)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에서 6시까지 들려지는 온라인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6월 7일(월)-6월 9일(수)는 서명철 목사가, 6월 10일(목)-6월 12일(토)는 장석남 목사가, 6월 14일(월)-16일(수)는 조원영 목사가 설교를 담당한다.

6월 17일(목)-25일(금)은 새벽 5시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면예배와 예배실황 중계로 드리며 손달익 목사가 설교한다.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흥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국가와 교회, 가정 앞에 놓인 흥해를 기도로 건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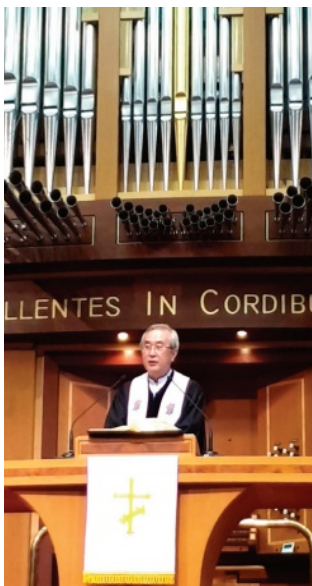
2021 흥해작전 공동기도문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서 사랑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오니,

1. 환난의 때에 서울교회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서울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마지막 날에 있을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을 깨뜨려 주시고 거듭남의 새 사람을 힘입게 하옵소서!)
5.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6.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주님!
(블로 연단한 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여호수아서 강해 시작 -

찬양예배, 수요일 I · II부 예배시간에

- 주보 1면, 당일 설교 요약으로 변경 -

지난 주일 설교를 시작으로 손달익 목사의 서울교회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손달익 목사는 그 동안 영적으로 상처받고 말씀에 갈급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다시 세워지길 바라며 주일 찬양예배와 수요일 1, 2부 예배 시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한다. 많은 성도들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예배에 힘써 모이기를 바란다.

또한 지금까지 주보 1면의 말씀은 지난 주 설교를 요약 정리한 것을 실었으나 오늘부터 당일 설교 요약을 신는다. 성도들은 예배 전 안내위원들이 배포하는 주보를 꼭 받아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 요약을 보며 예배에 임하여 은혜 받기 바란다.

많은 설교를 담당할 손달익 목사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 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 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황수지(육사생도) 한가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헌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홍해 저편 건너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회복된 서울교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김은석 집사
(2021 홍해작전
찬양분과)

저는 새벽예배를 좋아합니다. 우선 매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어제의 힘들음을 위로 받고, 성경구절에서 세상 고민에 대한 지혜를 얻기도 하며, 설교 말씀을 통해 영적 능력이 충전되고, 기도 중에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 새벽예배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 복된 예배당 새벽예배가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회복된다고 하니 기쁘고 설렘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언제나 즐겁고 평안한 곳인 줄 알았는데, 뉴스로만 들던 교회 분쟁을 직접 겪고 보니,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단한 노력과 영적 각성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초래된 일이라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과연 이 문제가 우리의 바램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지난 새벽예배 때 스가라 13장 9절의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로막던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손달익 담임목사님을 세우셔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을 홍해와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건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여정에 대한 걱정도 있

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홍해 건너 저편 반석 위에,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건강해진 서울교회를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막막한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이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라는 설교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홍해작전 기간 헌신의 뜻을 정하고, 회복과 부흥의 원년을 선포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한 없는 노력으로 이룬 소중한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부흥된 모습으로 세상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이 홍해를 건너서, 위로와 지혜, 영적 능력의 충전과 결단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따라 아장아장



강남희 전도사
(영·유아부 담당)

샬롬!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의 큰 잔치인 홍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교회 영아부(부장 : 이갑연 집사)와 유아부(부장 : 임대중 집사)는 서울교회 홍해작전에 영·유아 학생들의 참여를 돕기 위하여 “모세따라 아장아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영·유아부 교사인 고민정 선생님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기본 배경은 교사들이 미리 만들어서 꾸밀 스티커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편을 받으신 후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자녀들과 함께 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6일 - 20일
 - 행사명 : 홍해작전 액자 꾸미기
 - 방법
1. 영·유아부에서 보낸 “모세따라 아장아장” 꾸러미를 받습니다
 2. 개봉하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홍해작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3. 순서에 따라 액자를 꾸며주세요.
 4. 다 꾸민 액자 사진을 찍어 밴드나 교역자, 혹은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5. 액자는 홍해작전 기간 동안 자녀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놓아 주세요.
 6. 영·유아부에서 준비한 상품을 받습니다. (제출한 모든 액자 사진에 한하여 시상합니다)



기본형



바다 꾸미기



모세 색칠하기



예쁘게 꾸미기

2021 홍해작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1 홍해작전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1 홍해작전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 글씨를 의미한다.

* 참가방법

1. 2021 홍해작전 주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를 캘리그래피로 작성
2. 2021 홍해작전 성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니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 리로다"(시편 27:5)를 캘리그래피로 작성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3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캘리그래피로 작성한 원본을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 * 참가 자격 :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 * 기한 : 6월 20일(주일)
- * 발표 및 전시 : 6월 27일(주일)

천국시민 양성 - 신앙강좌반

우리말 성경의 역사 6

- 개역(改譯)성경 -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한 성경



1938년 <성경전서 개역> 출간



1952년 판본 한글판 표기 시작, 한글맞춤법 적용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 1961)

우리말 성서 번역 계보도



* 공동번역성서(1971, 1977, 1999)
 * 성경전서표준새번역(1993, 2001, 2003)
 (출처 : 대한성서공회)

우리말 성경의 역사는 초창기의 개인 번역 시대, 발전기의 위원회 번역 시대, 정착기인 개역성경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887년부터 1911년까지 24년에 걸친 위원회 번역인 신약성경전서(구역)를 일단 출간은 했으나, 즉시 개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개역위원들은 기존 팀원들로 <번역위원회>를 <개역위원회>로 명칭만 바꾸고, 1911년판을 가지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역 작업이 진행됐다. 이때부터 1911년판은 <구역> 작업하는 판은 <개역>이라고 칭하게 된다. 이 개역 작업에 참여한 번역자 수는 선교사가 11명, 한국인이 4명으로 모두 15명의 개역위원들로 주거지를 따라 평양과 서울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추진되었다. 많은 노력 끝에 1936년 <구약전서 개역>이 출간되고 1937년에 신약 개역이 완료되어 1938년에 드디어 신약 합본인 <성경전서 개역>이 출간됐다.

성경 번역은 항상 신약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개역 작업은 구약이 먼저 이루어졌다. 신약의 개역 작업은 구약보다 15년 늦은 1926년 신약 개역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어 1937년에 완료되었다. 개역성경은 1911년부터 1938년까지 27년에 걸친 노력의 결산이었다.

*성경전서 개역의 특징

1. <1938년 판본>은 어휘 면에서 구역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문장 면에서는 많이 다듬어졌다.
2. 1936년 개정된 <역사적 철자법>을 따라 아래아(·)가 없어졌다.
3. 그러면서도 번역이 완료되기 4년 전인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 발표한 <한글맞춤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4. 1948년 한글맞춤법이 다시 개정되는데, 이것을 채택하여 출간하려던 차에 6.25사변이 나서 중단되자, 그 원고를 일본에 가져가 인쇄, 출판하였다. 이것이 개역본의 <1952년 판본>이다.
5. 이것은 다시 1956년에 번역내용과 표기법이 손질되어 1961년 출간되었는데 <1961년 판본>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된 개역본의 최종판이다.
6. 초기 우리말 성경번역이 한글 사용에 있어서 일반사회보다 앞섰지만,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을 적용하지 않은 개역성경 시대부터는 한글사용에 있어서 사회보다 뒤처지게 된다.
7. 그 결과 두 가지 방향이 형성되었다. 개역본이 완전한 번역이라는 보수적 인식이 팽배해져 성경을 고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증대되어 개역본이 고쳐지는 방향,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본문을 요구하는 방향이었다.

정정 기사

지난 주일 순례자 1528호 5면, "제15대 피택 권사 명단"을 "제14대 피택 권사 명단"으로 정정합니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6.3(목) 6월 여호수아회에서 설교하였다.
- 당선 : 8교구 김명중 집사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이사로 당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6월7일	월	음 37:1-40:2		행 12-16	
6월8일	화	음 40:3-42:17		행 17:1-21:26	
6월9일	수	시 1-7		행 21:27-28:31	
6월10일	목	시 8-14		롬 1-6	
6월11일	금	시 15-18		롬 7-11	
6월12일	토	시 19-25		롬 12-16, 고전 1-3	
6월13일	주일	시 26-31		고전 4-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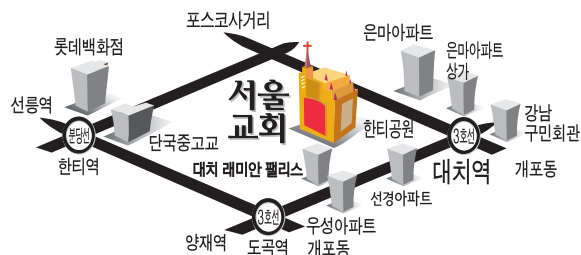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가 더욱 번영하게 하옵소서.
2.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 홍해작전을 통해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는 주제와 같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높이 세우 주옵소서.
3.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기도에 힘쓰며, 임직자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